

<찬성>

몇년전 유명 탤런트 '최진실'씨가 악플로 인해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전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해야한다.

먼저 이 제도의 장점을 이야기 하겠다. 우선 첫번째로 인터넷 실명제를 실행한다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 이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악성댓글을 작성한 사람을 쉽게 검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의지로도 악성댓글을 줄일 수 있다. 개인 온라인 상에서 익명인 상태로 글을 쓰게 되면 욕설, 혹은 상대를 비방하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을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밝힌 상태에서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다. 왜냐 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쓴다면 자신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올릴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식으로 개개인이 한번씩만 생각을 해본다면 악성댓글이 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정보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악성댓글 뿐만 아니라 사이버 범죄도 실명제를 통하여 줄일 수 있다. 인터넷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하드등에서 실명공개를 원칙으로 하면 불법 소프트웨어를 유포하고 다운받은 사람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강화되어 예술인력이 더욱 발달된 사회를 만들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상거래 피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가해자를 명확히 할 수 있어 체포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노력을 대폭 감소 시킬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는 필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2012년 이전에 그대로는 안된다. 이를 개선하려면 개인의 실명을 밝히되 그 외의 정보는 개인 선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는 반만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여 언론의실행되었던 제도자유를 보호할 수 있고, 정보 도용을 예방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장점을 갖는 인터넷 실명제를 속히 개선하여 실행해야 한다.

<반대>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상에서 댓글이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자신의 실명을 반드시 사용해야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2년에 사이버 범죄예방을 위해 건의되었고 2007년에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다. 하지만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개인의 자유권 침해등을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이와 같이 인터넷 실명제는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야기했다.

인터넷 실명제가 실행되려면 1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이는 바로 개인의 신원 파악이다 하지만 신원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다면 정보유출, 도용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를 필요에 의해 바꿀수 없기 때문에 유출된 정보로 인해 더욱 큰 금전적,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은 개인정보 유출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자연권 침해가 이 중에 하나이다.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다면 표현/언론의 자유가 보장될 수 없다.

권력을 가진자의 횡포아래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방송인 김제동씨는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말했다가 그의 상위 관계자들이 그를 사퇴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 때문에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 이는 자유 침해는 검열로도 볼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위와 같이 실명을 밝히는 방송과 같은 상황으로 인터넷을 몰아가고 이는 국가의 권력을 지나치게 키우는 지름길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많은 인터넷 실명제가 다시 우리나라에서 실행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